

9 반도체 제조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

성별	여성	나이	31세	직종	반도체 제조공정 종사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3년 6월 25일 □사업장 입사하여 제품기술팀에서 샘플관리 업무를 하였다. 2010년 4월 경 몸살로 인해 일주일 병가 후 2010년 5월 3일 복귀하여 일을 시작하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을 거쳐 타 대학병원에서 급성백혈병 진단받았다. 2013년 7월 23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2013년 10월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는 2003년 6월 25일 □사업장에 제품기술팀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 입문교육연수를 받은 후 제품기술팀에서 샘플관리업무를 2004년 6월까지 근무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PA(Process Architecture)부서에서 FA(Failure Analysis) 업무를 2008년 7월까지 근무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C&M(Chip card & Microcontroller)부서에서 PA(Process Architecture) 업무를 2010년 4월까지 근무하였다. 근로자는 재직 당시 월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사무실 근무일 경우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고, 5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하였다고 한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인자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10년 4월 경 몸살로 일주일 병가 후 2010년 5월 복귀 하였으나,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을 거쳐 타 대학병원에서 급성백혈병 진단 받았다. 대학병원에서 호중구감소상태에서 진균성장염이 발생하여 왼쪽 결장 반절제술을 시행하였고, 항암치료를 받았다.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다.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다. 가족력상 특이 소견 없었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는 2003년에 입사하여 약 7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벤젠, 전리방사선, 1,3-부타디엔,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, 산화에틸렌, TCE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. 근로자가 사용했던 유기 화합물 중 BOE의 경우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고, 이로 인한 산화에틸렌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. 또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한다.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. 끝.